

자연사 박물관 설립의 제일보

이창진

(충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)

자연사 박물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연 과학 교육장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. 이곳은 정확하게 연구된 자연 표본과 함께 모형과 디오라마 같은 시청각 교육 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교육장 역할을 한다.

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의 경제와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한데 이럴 때 잘 갖추어진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면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. 필자가 미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많은 한국 관람객을 만났으며 그들 대부분이 이러한 박물관이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. 그때가 벌써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할 것이다.

이러한 욕구 때문인지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 유사 기관만 달면 관람객으로 문전 성시를 이룬다. 그리고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석탄 박물관, 과학관, 과학교육관 등을 우후 죽순처럼 건립하고 있다. 그리고 공룡 알이 발견된 지역,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, 생태계가 잘 보존된 늪지 등 많은 지역이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립 자연사 박물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.

역사 박물관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전시하듯이 자연사 박물관도 그 나라 고유의 자연 표본을 주로 전시해야 한다. 다만 전문가가 직접 탐사하여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한 경우 외국 표본도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으며, 외국 박물관과 전시물을 교환하거나 기증 받아 외국의 특이한 자연 표본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. 그러나 외국의 자연 표본 시장에서 출처가 정확지도 않은 것을 사와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하는 예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.

우리 나라에 바람직한 자연사 박물관이 세워지길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

안하고자 한다. 자연사 박물관은 일 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 기다리면서 자연 표본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. 대학과 연구소 또는 개인 중에 자연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의무적으로 그 목록과 설명서를 첨부한 표본을 제출 받아야한다. 이렇게 모은 자연 표본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-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자연 표본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끊임 없이 개발해야 한다. 이렇게 모은 자연 표본과 연구-교육 자료가 넘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시점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.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미국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.